

# 마음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라

성경 출애굽기 6:2-13

##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마음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어떻게 마음의 눈을 주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마음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찬양

### 1 내 앞에 주어진 (은혜의 찬양 268장)

내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후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 2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

- 1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 2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들은체 하려나
- 3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 4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후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 말씀 읽기 출애굽기 6:2-13

-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 본문 배경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시며,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2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던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또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7절)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요구할 것을 명령하셨지만(11절), 모세는 자신의 말이 잘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며, 모세와 아론에게 그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소명이 강하게 드러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말씀 관찰

###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때 무엇하고 계셨나요? (5절)

**답**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해설** 이스라엘은 자유를 억압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노예로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힘든 나머지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5절).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며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 2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8절)

**답**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7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땅에 살며 온갖 설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8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기 보다 절망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가혹한 노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9절).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 속에 살다 보니 현실적인 것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갇히면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실의 상황을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 현실과 현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 말씀 적용

### 1 하루 24시간 중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 보세요.

### 2 내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눠 보세요.

## 말씀 암송

### 6-1 하나님의은사와

로마서 11장 29절

♩ = 112

작곡 조미진



##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흘리는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현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에 놓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